이렇게 들었다

인터넷 성범죄

"애욕은 번뇌의 왕"

▩ "욕망은 마치 물결과 같고 번개와 같고 들불 같나니, 여자를 욕심냄은 독과 같아서 소용돌이 속에 든 고기 신세로 만든다." <정법염처경>

▩ "애욕은 삶에 대한 집착의 근본이 되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를 탐내게 되고, 때로는 죽음마저 불사할 정도의 극단적 욕망으로 변한다." <남전장경 증지부>

인터넷에 건전한 성(性) 문화를 위협하는 행위가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 결혼상담소를 위장해 윤락을 주선하는 사이버 포주, 고교생 윤락 알선 사기단, 음란물을 판매해온 대학생 등이 최근 대거 적발됐다. 인터넷 성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보의 바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했지만, 일부에서는 '정보의 쓰레기통' 이라며 우려했다. 그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인터넷 이용자의 50%이상이 성관련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윤회의 이유를 설명했다.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되풀이함은 애욕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은 끝없는 과거로부터 온갖 애욕의 바람을 잠재우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가 있느니라."

부처님은 애욕의 바람을 경계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란 새로운 애욕의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다.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걷잡을 스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대표적 이유는 인터넷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쉽게 음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심지어 이메일을 통해서도 유혹한다.

부처님께서는 애욕을 "번뇌의 왕〈대반열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 만큼 이로 인한 갖가지 번뇌들이 뒤를 따른다는 얘기다. 인터넷도 이런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인터넷상의 문제는 곧바로 현실로 이어져 여러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가상공간이란 점도 성범죄를 더욱 부추긴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적인 '불음계' 를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공허한 잠꼬대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은 물방울 같고, 느낌은 물위의 거품 같으며 생각은 봄철의 아지랑이 같다〈포말경〉" 고 했다. 또한 〈무상경〉에서는 "물질은 항상 변한다고 관찰하라. 바르게 관찰하면 즐겨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그것은 곧 마음의 해탈이다. 이와 같이 느낌(受), 생각(想), 지어감(行), 의식(意識)도 또한 그렇다고 관찰하라" 고 하셨다. 김중근 기자

청년실업 100만명 시대 오고 있다

불자 세상보기

취업 서비스체계 구축
직업교육 실용화 필요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박천익
대구대 교수
경제학

최근 한 자동차회사 신입사원 모집에서 300명 정원에 5만2천여명이 응시해 1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의 입사경쟁률 역시 고시경쟁률보다 높다. 취업 자체를 포기한 인원까지 합하면 취업 성공 가능성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대학가는 온통 절망과 낙담으로 가득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다. 1997년 말에 들이닥친 외환위기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기업 및 금융의 체질강화를 시도했지만 한국경제의 능력으로는 힘든 부분들이 많았고, 결국 한국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물론 신규채용과 벤처기업을 포함한 새로운 창업으로 실업률이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고용감축을 고려하면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금년도 대졸취업 희망자는 취업 재수생 26만명에 졸업예정자 18만명으로, 총 44만 명에 이르지만 신규채용은 2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를 감안하면 청년실업 100만 시대가 결코 멀지 않았음을 실감케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예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 의하면 오직 10%의 젊은이만이 한국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다 해도 고용여건이 열악해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현실이 우리 청년들을 외국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 지구촌 곳곳에서 삶의 터전을 닦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떠밀려 나가는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최소한 이 나라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우선 생산적 복지모델을 확립하는 문제다. 새로운 직업교육을 포함해서 현장교육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실업자가 능률적으로 실무능력을 쌓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근로 땜질하기식, 기회연장식의 작업을 최소화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용화해야 한다. 또 학·민·관 협동으로 청년실업교육을 전문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대학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생산적인 정보 및 취업 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면 청년실업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외 취업기회와 취업정보도 폭넓게 제공돼야 한다. 국내업체중 상당수가 일손이 모자라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층이 3D업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지만, 다양한 정보제공 부재도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부추기는 요인중 하나다.

신규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전체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 없이 젊은 날을 허비하는 청년의 절망은 나라의 절망이며 비극이라는 사실을 재삼 인식하고 정부나 기업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적인 세계화는 그 나라의 젊은이가 자신과 희망을 갖고 일할 때만이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선진국가의 건설 역시 젊은이의 용기와 비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개운사옆 승가대 건물 고시원 임대 안타까워

올해 고려대를 졸업한 불자 대학생이다. 지금도 학교에 다닐 때처럼 주말마다 인근 개운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운사 옆 중앙승가대 건물이 고시원으로 임대되면서 예전의 차분한 분위기가 사라졌다. 낡은 건물에 있는 승가대학 이전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필 개운사 바로 옆 건물을 상업용도의 건물로 임대하는가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다른 곳도 아니고 신성한 도량을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종단의 태도에 대해 솔직히 화가 난다. 사찰 주변을 좀더 조용하고 차분한 수행장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힘을 써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불자로서 자존심마저 상한다.

주말마다 조용히 참배를 해오던 사찰에 이제는 고시원 불빛이 환한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다.

(최인근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복지 · 교육 기금 마련 종단 '보시창구' 개설

나는 조그마한 사찰에서 학생회 간사로 있다. 법회 때면 아이들은 정성스레 보시금을 낸다. 나도 법당에 삼배를 올리기 전에 조금씩 보시금을 낸다. 물론 내 자신을 위한 것과 가족들을 위한 마음에서 하는 보시다. 사실 지금까지 소외된 이웃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보시를 한 적은 없었다.

종교를 없는 한 친구로부터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참여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다. 불교도인 입장에서 자비의 실천을 해야 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조금은 부끄러웠다.

조그만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것이지,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참자가 많으면 보시문화가 정착되기 쉬울 것이다. 나부터 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정기적으로 보시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대다수 불자들은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종단차원에서 '보시창구' 를 개설하고 참여방법을 자세히 홍보해 주었으면 한다.

(정원선 · 학원강사)

● 현대불교를 읽고

노인복지 정보 더 많이 보도

아버지는 현대불교신문의 열렬한 구독자다. 몇 해 전 몸이 불편해 지셔서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던 차에 현대불교에 흥미를 붙이신 것이다. 아버지는 직접 절에 찾아가 큰스님들 법문은 듣기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신문으로나마 큰스님들을 만나 뵙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신다.

며칠 전 TV에서 노인복지 정보프로그램을 보시고는 일일이 메모를 하시면서, "부처님 말씀도 읽고, 나 같은 노인네들도 볼 수 있는 노인복지정보를 신문에 실으면 좋을 텐데…"라며 매우 아쉬워 하셨다.

아버지만 보시는 신문이겠거니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현대불교신문을 찬찬히 읽어보니 정말로 노인복지 관련 정보나 기사가 없었다. 부처님 말씀과 함께 어르신들 사는 얘기나 운동프로그램 정보 소개, 지역노인복지관 안내 같은 기사를 실으면,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량희 · 아산시 방축동)

단풍철 산마다 인파 산사 소음 · 쓰레기 몸살

주말이면 단풍구경을 가는 사람들로 도로도, 산도, 사찰도 사람들로 북새통이라고 한다. 나 역시 지난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내장산으로 단풍구경을 갔다. 그러나 곱게 든 단풍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해야 했다. 경건해야할 사찰이 큰소리로 떠드는 사람들로 인해 관광지를 방불케 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이런 행태로 인해 우리 산천은 멍들어 가고 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찰에서는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정숙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김진홍,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기고

"조계사 인근 24층 건물신축 "문화 테러다""

강임산
겨레문화답사연합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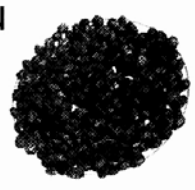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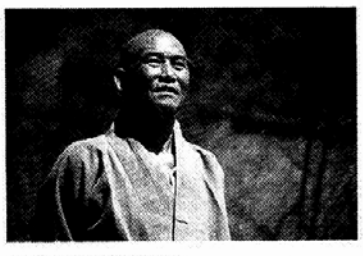
서울이야말로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그윽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도(古都)였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이미지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불과 최근 몇 십 년 동안 뒤바뀐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한강 유역의 선사문명, 한성백제를 비롯한 삼국시대의 찬란한 고대문명이 서울에 존재했었다. 가깝게는 조선왕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요 무대이기도 했다. 동아시아에서 500년 넘게 이어온 왕조인 조선왕조. 그 통사를 훑어 내려간 공간이 바로 서울 중심지 한 복판 옛 한양 땅인 것이다.

그런 한양 중에서도 단연 핵심적인 공간은 바로 오늘날 종로일대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종묘가 밀집되어 있고, 그 앞 육조거리가, 종로통 운종가 일대가 명실상부한 조선왕조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서 종로의 면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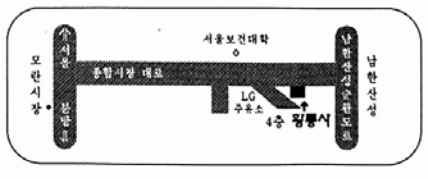
하지만 오늘날 종로의 모습은 개발과 번영이란 이름 하에 그 면모가 사라진지 오래다. 이는 과거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의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계획과 몰 역사적인 공간인식이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 경복궁을 압도하며 세종로에 들어선 정부종합청사 빌딩만 봐도 그러한 인식의 일단을 쉽게 읽을 수 있으리라. 그런 점에서 '유서 깊은 역사의 도시' 서울을 살리는 최우선 과제는 바로 종로 일대의 역사경관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역사의 도시 서울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종로 한 복판에 또다시 높이 90미터의 24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것도 사대문 안에서 가장 큰 사찰이자,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조계사 대웅전 바로 코앞이다. '개별 문화유산을 포함한 주변경관의 보호' 라는 문화유산 보호개념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관련법규의 자구에만 의존한 종로구청의 이번 처사가 '문화유산에 대한 테러' 라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는 이번 결정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다.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 건강법
몸안에 독소를 제거해주는 새로운 발건강법!!
아침이 상쾌합니다
▲ 발바닥에 붙이고 하루 밤을 자고나면 누런 노폐물이 빠집니다.
▲ 만병의 근원인 몸속에 노폐물이 시트에 묻어져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아픈 부위나 발바닥에 붙여 독소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 갈라진 발에 좋으며 딱딱한 발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이런 분들은 더욱 좋습니다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굽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02]455-6944, 02]453-5851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 檀단 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괴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쳐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0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 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당뇨 관련하여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
◐ 상담문의 ☎ (02) 3437-8282 ◑

영가 천도재(49재) 안내

불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사정상 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지 못한 분들의 동참을 원합니다.
사업, 상업, 취업 각기 소원성취와 질병, 재난등의 해소를 위한 조상, 일가, 친척들의 천도재 입니다.
특히나 수자 영가(낙태아) 특별 천도재를 발원 하니 산부인과 집도의사 그가족 해당 어머니들 의 동참 원합니다. 성불 합시다.
● 입 재 : 2001년 양력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사시예불 ~
● 결 재 : 2001년 12월 22일 회향(동지날)
[영가 1인당 5만원
수자영가 1인당 3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666-21-0285-909 예금주 지덕용


황 룡 사 주지 금해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문의
0二-七三七-八八八一